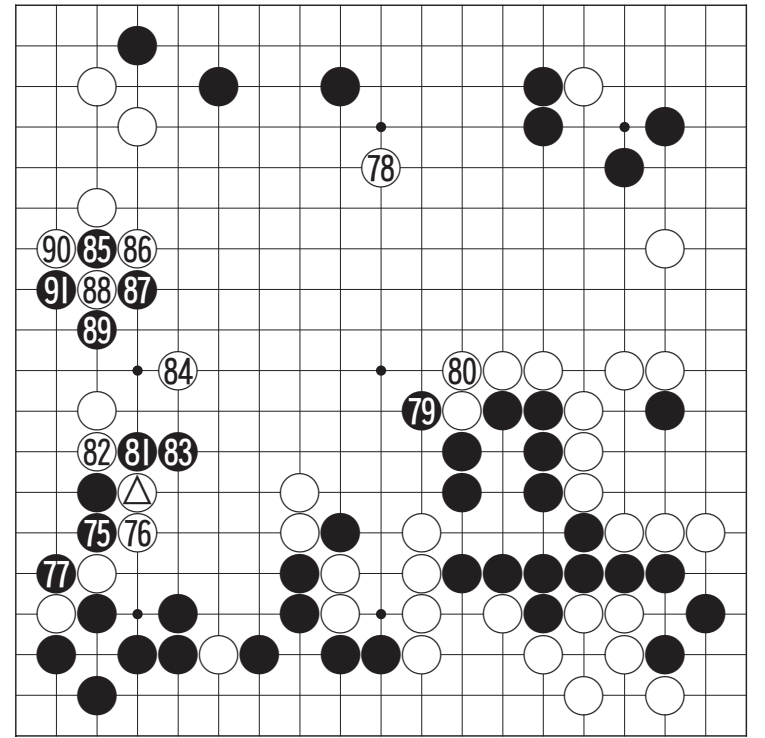


[ 바둑 ]

제88회 전국체전 반가운 시냇거리 일반부 결승전

백 송흥석 6단 (경기도) / 흑 김남훈 7단 (광주시)



백 스가 흑 모 양을 지우면서 좌편을 두텁게 하는 일석이조의 호락이었다. 흑이 77까지 물러선 것은 어쩔 수 없는 수. 바둑이 뜻대로 풀려 가지 송흥석 6단 더욱더 기세를 올려 백 78로 절호의 곳을 달려간다. 김남훈 7단 이제는 화가 난다. 이대로 앉아서 손뼉을 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순 뻘 것을 추구하며 강력하게 흑 81로 맞혀 준다. 사실 78로는 이곳을 두텁게 막아 줬어도 무난한 형국이었다. 그러므로 흑으로서는 시냇거리가 오히려

백도 언제든 지는 버리는데 태도도 백 84로 슬쩍 비키고 있다. 그런데 비킨다고 든 84가 실은 사려가 조금 부족한 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확실하게 지키고 흑 2로 잡을 때 3.5로 상변을 눌러갔으면 승세를 굳힐 수 있었다. 백 84가 빈틈을 보이자 김남훈이 득달같이 흑 85로 덤벼든다. 백도 강하게 86으로 맞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대 패가 나버렸다. 이것은 백로서는 안좋은 상황이며 흑으로서는 가름에 대비같은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셈이다.



<이세돌 9단> <이창호 9단> <박명훈 9단> <강동윤 7단> <윤준상 6단>

7관왕 이세돌 "MVP 넘보지 마!"

2007 바둑계 최고의 스타는 누구일까. 한국기원은 내년 1월 4일 열린 2007 바둑대상(大賞)의 각 부문 후보들을 최근 발표했다. 그랑프리에 해당하는 최우수기상상(MVP) 부문에 노메이티브 기사를 이창호 이세돌 박명훈 강동윤 윤준상 등 5명. 12월 6일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각 언론사 바둑담당 기자 및 관전자들의 투표에 의해 영광의 얼굴이 결정된다.

한국기원, 이세돌·이창호 등 5명 '바둑대상' 후보 발표

▲최우수 기사상=이세돌 9단의 수상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MVP를 거머쥐던 이 9단은 올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적을 거둬으로써 유력한 최우수 기사상 수상자로 꼽히고 있다. 지난 10일 국수타이틀을 따낸 것을 비롯 현재까지 7관왕 기록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세계 대회인 도요타 텐스배와 TV아시아선수권전, 그리고 국내 대회인 GS칼텍스배 프로기전과 KBS바둑왕전, 9단들만 출전하는 제한기전인 백신배까지 모두 7개 대회의 챔피언이다. 이창호 9단이 올해 왕위전 12연패, 중환배,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했지만 이세돌에 필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 이밖에 강동윤 7단과 윤준상 6단도 올해 선

Table of 2007 MVP Candidates with columns for Name, Major Titles, and Best Result.

1993년 1월 11일생인 박정환은 14세 10개월 만에 우승해 이창호(14세 10일)의 최연소 타이틀 획득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5월 입단 이후 1년 6개월만의 우승으로 서봉수(1년 8개월)를 제치고 프로 입문 후 최단 시간에 타이틀을 획득, 바둑사에 새로운 획을 그쳤다. 이영구도 한국물가정보배에서 준우승 하는 등 각종 기전에서 활약하는데다 한국 바둑리그에서 영남일보 주장을 맡아 팀을 정규시즌 1위로 견인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자 기사상=루이 나이에이 9단, 박지은 8단, 조혜연 7단, 이민진 5단, 김혜미 5단 등 5명이 후보로 선정됐지만 현재 여자 바둑계를 평정하고 있는 루이 나이에이 9단이 14년 만의 일.

백 스가 흑 모 양을 지우면서 좌편을 두텁게 하는 일석이조의 호락이었다. 흑이 77까지 물러선 것은 어쩔 수 없는 수. 바둑이 뜻대로 풀려 가지 송흥석 6단 더욱더 기세를 올려 백 78로 절호의 곳을 달려간다. 김남훈 7단 이제는 화가 난다. 이대로 앉아서 손뼉을 내줄 수는 없다. 그래서 순 뻘 것을 추구하며 강력하게 흑 81로 맞혀 준다. 사실 78로는 이곳을 두텁게 막아 줬어도 무난한 형국이었다. 그러므로 흑으로서는 시냇거리가 오히려

원익배 10단전 4강 진출자 확정

이영구·목진석·이창호·백홍석...전기대회 시드권자 전원 탈락

제3기 원익배 10단전 4강 진출자가 확정됐다. 지난해 27일 이영구 6단이 안조영 9단을 꺾고 가장 먼저 4강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에 열린 8강전에서 목진석 9단, 이창호 9단, 백홍석 5단이 차례로 승리, 4강에 이름을 올렸다. 이영구 6단은 시드를 받아 8강전에서 출전한 전기 우승자 안조영 9단을 쓰러뜨리고 4강전에 진출, 불가정보배에 이어 다시 한번 결승 무대를 가시권에 두게 됐다.

이 6단에게는 원년 대회 우승자인 이창호 9단과 격돌하는 4강전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목진석 9단의 상대는 '강타자' 백홍석 5단이다. 백 5단은 이세돌 9단을 제압한 원성진 8단을 꺾고

안조영 9단, 최철한 9단, 송태근 8단 등 시드권자들이 첫전에 탈락한 것이다. 전기 대회 준우승자인 백홍석 5단만이 4강에 진출해 체면을 살렸을 뿐이다. 4강전은 2008년 1월에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원익배 10단전의 우승 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이며 돌을 맞춘 사람이 흑백을 결정한다.

고노린 9단, 日 천원전 타이틀 방어

고노린 9단이 최근 일본 효고현에서 열린 제33기 일본천원전 도전 5번기 4국에서 도전자인 아마시타 게이고 9단을 258수 만에 백 불계로 제압, 종합전적 3승1패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고노린 9단은 제31~33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아마시타 게이고 9단과 도전자기를 벌여 모두 승리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일본 7대 타이틀 가운데 패킹 1.6위 기전인 기성(棋聖), 왕좌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도전자 아마시타 게이고 9단은 천원전 도전에 실패하면서 타이틀을 추가하지 못했다.

일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including school districts and commercial areas.

현대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featuring a 'Full-time Real Estate 24-hour Online Auction' and listing various types of properties available.

국민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listing numer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residential and commercial units, with prices and features.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Real estate consulting advertisement for various investment and rental services, including a '2006 Yearly Forecast' and 'Wedding Hall' promotion.